

한살림농부이야기

2020년  8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소식지 30호

발행인 이백연 편집인 곽현웅
편집부 한혁준 김진주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2, 3층
문의 043.716.0508
홈페이지 farm.hansalim.or.kr
이메일 farm@hansalim.or.kr
페이스북 facebook.com/hansalimfarmers



두미반곡공동체 최진현 생산자(옥수수)



주음치공동체 정광선 생산자(애호박)



두미반곡공동체 최진현 생산자(가지)



주음치공동체 이학준 생산자(오이)

냉해와 폭우 병충해를 견디며 자란다 생산자의 땀방울의 힘! 한살림 열매채소

올해도 냉해와, 폭우, 병충해 피해 등으로 열매채소류 작황은 풍요롭지가 않다. 기후위기는 특정작물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쭉길쭉 열매채소가 영글어간다. 잘 영글어가던 열매는 문득, 세월보다 빨리 몸집을 키운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성을 내보지만 단단해진 껍질 속에 실한 육질이 입맛을 돋운다. 시설하우스 재배를 마무리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열매채소는 소비자의 밥상과 농부의 밥상을 풍요롭게 한다. 오이소박이, 가지무침, 호박무침, 된장을 듬뿍 찍어낸 고추라면 잡곡밥이든 쌀밥이든 농부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라면 더 좋다.

한살림 큰공복 인농 박재일 선생 10주기 기념 좌담회



인농 박재일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박재일 선생님은 평소에 한살림은 끝없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완성된 게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살림 협동운동의 특징은 ‘밥’에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여 ‘밥 운동’을 펼쳐왔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30년은 성장을 넘어 성숙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사회 속으로 넓고 깊게 ‘밥 운동’을 펼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농 박재일 선생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세 분의 선생님(조희부 선생, 이상국 고문, 이호열 고문)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하여 한살림이 또는 한살림 생산자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인농 박재일 선생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인상적인 장면이나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조희부 박재일 선생님을 떠나보낸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새 세상도 어렵고 한살림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 박재일 선생께서 더 오래 사셨다면 하는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박재일 선생님은 말보다는 실천하는 분이셨는데, 여러 모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셨어요. 자신의 말은 아끼시고 가만히 기다려 주시며 바른길로 나가도록 지도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 넓고 깊으셨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괴산군 송면지역에 오셨을 때 일인데요, 그 지역 전체를 한살림 생산기지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전부터 송면 지역을 다니곤 했지만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내다보는 눈이 넓고 깊은 분이셨습니다.

이상국 박재일 선생님은 한살림을 처음 시작하실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더불어 사는 관계로 해보자. 더불어 사는 관계로 온 세상 만물이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부터 변화해보자. 내가 먹는 밥 한 알부터 다른 생명을 보살피면서 생산하고, 내 생명에 도움되게 먹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웃 생명도 돌아보는 협동적 삶의 실천으로 우리 한번 밥상을 차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박재일 선생님이 한살림을 이 세상에 내놓을 때 세상을 향해서 내뱉으신 말

씀입니다. 모든 세상만사는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것인데 그 당시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세태를 한탄하면서 생산한 사람 없이 밥이 만들어지지 않고, 먹는 사람 없이 생산자의 생활이 보장될 수 없다는 생산과 소비는 한 몸임을 일깨우는 것으로 한살림 운동을 출발시켰습니다.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고민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소박하지만 내용은 혁명적인 것이지요. 박재일 선생은 이 시대의 새로운 혁명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가치 중심의 산업문명사회가 양산하고 있는 잡다한 생명위기 현상을 처방하고 중단하기 위해 생산양식과 생활양식 변화의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원래 우주 질서대로 사는 새 문명 사회의 모습을 밥상 위에서부터 지금 당장 체험하면서 확장시켜 가자고 열정적으로 나섰습니다. 박재일 선생은 자신의 안일이나 집안 일 보다는 세상일을 먼저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6명의 가족을 둔 가장, 인간 아버지로서의 드러내지 않은 고뇌가 왜 박재일 선생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과 같이 살아갈 이 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한살림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한 상태에 있는데, 먹고 살만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먹고 살만하지 못한 누군가와 죽어가는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데서 오는 자신과 자식들의 생존 위기의 증가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박재일 선생이 돌아가신 10주기를 맞이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호열 최근 들어 건강이 나빠지니까 더 박재일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박재일 선생님은 늘 농민문제는 생산자들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한살림 생산지의 과제와 문제 해결의 전권을 주시고 전국 조직운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정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2000년 1월 21일, 아산 지역농업 선포식 후 박재일 선생과 함께 아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농업을 살릴 방안을 같이 구상하고 설계했었어요. 그 토대 속에서 한살림 중요 생산지로 지금의 아산으로 발전된 거죠. 특히 여러 상황으로 어려웠던 그때 아산에 내려오셔서 교육하고 지도하시며 ‘농업은 결국 우리 산업에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 농민은 우리 국민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살림 안에서 농민이 가져야 할 어머니 역할에 대해 들려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2030 청년들을 농촌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맡으면서 회장님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대 초반의 저를 한살림 생산자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는데. 제가 지



조희부 (전)괴산 눈비산마을 대표



이상국 (현)한살림생산자연합회 고문

금 30대 청년들하고 일을 하려니까 선생님 같은 방식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웃음) 선생님은 저에게 강요하는 것도 없었고 보채는 것도 없이 그저 격려만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증을 가지고 채근했던 거예요. 한살림 방식이란 뭘까? 라는 고민을 한동안 했어요. 내린 결론은 그냥 놔두고 또 격려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농업이 일어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늘 어려울 때마다 선생님이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은 평생 같 거 같아요. 선생님의 리더십을 우리 후배들이 잘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국 한살림 하시기 전에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농업을 살려내는 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 등 ‘살림’이라는 개념은 박재일 선생님이 늘 화두로 삼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 쌀가게를 여시고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라는 생각하다가 지하철에서 전체를 같이 살려낸다는 뜻, 한집 살림이라는 개념으로 ‘한살림’을 떠올려서 붙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장일순 선생님이 이름을 보시고 ‘한’이라는 의미가 크고 넓어서 패러다임, 가치체계, 세계관을 새롭게 전환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고 한살림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좋겠다고 하시면서 ‘한살림운동’이라는 용어로도 확장되기도 했죠.

Q.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고마워하고,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농사짓고 생산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한살림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요즘 많이 약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한살림이 새롭게 변하고 성숙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이백연 2~3년 전부터 생산자, 소비자의 관계에 거리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사업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지만, 친환경 농산물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서 외부환경의 변화가 생겼고, 품질 품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쌓인 갈등도 있죠. 본래 한살림이 가졌던 전통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절대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가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을 맡으면서 적어도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가 종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한살림도 변해야 하고 적응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살림의 가치를 잃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조직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열 우리가 한살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한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한살림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도 소중하죠.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갔어요. 그에 반해 새롭게 이끌어갈 리더들을 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보니까 과거의 생각으로 현재를 끌고 가려고 하니 잘 되지가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시간과 힘을 들여 새로운 시대

의 새로운 리더십들을 양성해야 하고,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관계들을 맺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국 한살림이 초기에 대중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게 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 생산자의 성실한 삶의 모습, 생산현장에서의 생태적 행위, 삶에 대한 한살림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신뢰가 쌓이고 감동으로 다가 왔고 사랑하는 맛을 느낀 거죠. 지금 한살림 하는 사람들은 박재일 선생 처럼 서로의 삶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희부 생산과 소비 관계는 한살림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긴장관계이자 대립관계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값을 높이 받고 싶고, 소비자들은 좋은 것을 싸게 사고 싶고,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생산과 소비 부분은 서로 갈등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합니다. 무조건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라는 것은 서로 하나의 흐름 속에 있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살림 운동하는 사람을 ‘한살림꾼’이라고 했었어요.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실무자든 한살림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한살림꾼’인 거죠. 하지만 현재 한살림 소비자 60~70만 가구, 생산자 2200가구가 다 한살림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차이가 있고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 활동가를 ‘한살림꾼’으로 ‘한살림 운동가’로 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일은 한살림 연수원,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많은 고민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한살림꾼’들을 양성하고, 교류하고, 서로 대화하며, 이견을 좁혀 나가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연합회에서도 중심으로 책임과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실무자, 활동가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한살림의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년이 되면 떠나야 하잖아요. 한 평생을 한살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노후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생협 임원에 대한 의견인데요. 임기 4년 마치면 떠나게 되니까 한살림 운동가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현직 전직 관계없이 한살림 운동의 뜻을 이어가도록 손을 잡고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생산자 조직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지역한살림생협 임원들과 깊은 교류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생산자가 지역한살림생협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한살림생협 이사로 참여하는 생산자 대표를 잘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소비조직과 생산조직이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곽현용 저는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봅니다.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감사히 소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기억과 추억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기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호열 (현)한살림생산자연협회 고문



이백연 (현)한살림생산자연협회 회장

공급이 과잉인 시대인데도, 소비자들은 여러 개의 친환경 농산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되었고, 한살림은 여럿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제는 기본적인 약속이 작동되는 구조로 가야하죠. 상호 약속,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들을 시도하고 노력중인데도, 사과 같은 경우는 비파괴검사 같은 장치를 도입해서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Q 기상이변이 가속화되고 있고, 사막화 현상, 물 부족 문제, 식량부족과 식량위기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농사짓기도 무척 어려운데도, 이상 저온 냉해피해와,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상황은 특정 작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농업도 고투입에서 벗어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살림이 한살림 생산자 조직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조희부 기후변화 문제는 문명의 문제로 대부분은 산업의 문제예요. 한살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비중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호(29호) 생산자 소식지에 보면 부여의 '송재철 생산자'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분리수거, 농자재 쓰레기 문제, 일상생활실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살림 생산자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계되는 농업기술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하며, 한살림 또한 같이 발 맞추어 나가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국 두 가지 방안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살림 조합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한살림 물품을 먹지 않고 있는 이웃에게 한살림 물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낭비형 수입농산물, 이동거리가 많은 농산물 소비를 줄이고 한살림 물품으로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살림 생산자들도 한살림 물품으로 생활을 온전히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살림이 지향하는 농업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줄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살림 물품은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확장해서 보면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활실천이 활발히 전개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백연 한살림연합 차원에서 올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학습하고 강좌도 여러 번 열었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살림 조합원 전체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지만, 물품 포장을 살펴보면 고민이 되기도 하고,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포장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국 현재 한살림 공병 회수율,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기후변

화를 줄이는 방안으로 설정한 과제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과제를 다시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살림이나 한살림 생산조직이 다른 특별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한살림 활동을 더 착실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살림 물품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기본 활동을 각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살림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을 지키는 것을 첫째로 하고 다음 것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곽현용 생산 공동체별로 물품 이용 생활화 활동을 작년부터 전개하고 있는데, 흥천연합회 같은 경우 물품 출하액의 1%를 한살림 물품 이용으로 쓰고 있어요. 많은 공동체들이 물품 출하금액의 1%를 모아서 물품이용권이나 물품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흥천연합회는 일 년에 한 6천만 원 정도의 물품을 사용하며 물품 이용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호열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저는 농민으로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비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농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지는 농사짓기 힘들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졌어요. 작부체계 전환과 관련한 연구 등을 계속 고민해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를 내놓고 대처 방안을 제안하는 일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 한살림 농업정책을 새롭게 손보기로 되어있는데, 97년에 만들어진 한살림 농업정책은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필요하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초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워크숍도 여러 차례 진행하는 방식과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한살림 농업정책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현장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부 지금 한살림 농업정책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과 제도, 규정 등이 오래 된 것들이 많죠.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는데, 앞으로는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이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려면 과감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고, 공개적인 토론도 필요하죠.

Q 2019년 생산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생산자의 경우 후계자가 없다는 응답이 40%가 넘어섰습니다. 한살림 농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청년 생산자 육성, 귀농자 지원 정책 등 후계 대책이 시급합니다. 어떤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호열 제가 한 3년 동안 농촌에 연고가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촌에 살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한살림이 참 답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조직보다 한살림이 훨씬 청년 농업인을 받아들이기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살림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두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 아산에



곽현용 (현)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서는 나이 드신 생산자에게 은퇴까지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지? 언제 그만둘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달라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귀농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실무자들에게 과수원을 임대해주었죠. 생산자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2200명 생산 농가를 향해서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생산자들에게 농업 승계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해줘야 해요. 그래야 그 농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공동체 스스로가 어려우면 생산자연합회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생산 약정과 배정에 있어서도 한살림답게 나누고 협동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하고 조율하면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곽현용 올해 생산자연합회 내에 정책위원회가 핵심과제로 공정한 약정과 배정 체계 정립이라는 과제를 정하고 규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 운동을 하겠다고 모였는데 실제 협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핵심 과제로 청년 후계 육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퇴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던 약정량을 공유자산화 하는 방안이나, 전체 약정량의 일부를(10% 정도) 공유자산으로 생산자연합회가 관리하여 청년 후계농 육성이나, 공동체 간의 격차를 조율 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Q.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한살림 물품 사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체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차원에서는 ‘한상’ ‘팍 앤 키친’,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안과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조희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19 이후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 사회양극화 문제, 세대간 갈등의 문제 등 여러 변화가 상당히 폭넓고 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한살림이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살림도 30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쌓아온 실력도 있고, 자산도 있고, 신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변해야 하고 한살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국 한살림 물품 사업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기본을 돌아봐야 합니다. 활동가는 활동가답게, 실무자는 역량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생산자는 생산자답게 생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감하게 우리는 물류센터에서 생산자 물품을 검수하지 않습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내는 거죠. 검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품을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어느 사람이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원래 한살림이 하고자 했던 목적을 생각하고 기본부터 제대로 하면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열 IMF,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살림은 성장했습니다. 한살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30년 넘게 해 온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잘해왔어요. 단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준비해야죠. 어쨌든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도 달라져야죠. 특히 우리 한살림의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젊은 층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에 생산자연합회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도들은 좋습니다만 역할을 좀 더 구분해서 운동과 사업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세상으로 바뀔 거 같은데, 생산자연합회는 가치를 어떻게 재생산할지에 대해 더욱 집중해 주고, 별도 법인이 새로운 사업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한살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체를 새롭게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20-30대 청년들이 각종 회의에도 참여하게 하고, 농업정책과 같은 각종 정책을 만드는데도 같이 고민하게 함으로써 조직에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희부 한살림의 책임생산 책임소비를 예전처럼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비율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지만 인정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품질 품위를 높이는 노력과 대책을 통해서 물품이용을 높이도록 해야 하지만, 공공급식이나 외부유통을 통해서도 생산물품이 출하되도록 농업살림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한살림이 어려워지면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생산자입니다. 어려운 길을 터나갈 수 있도록 생산자연합회가 앞장서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살림 후배분들에게 더 강조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국 하나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재일 선생님이 말년에 애송했던 시입니다. 어느 행사 말미에 낭송했던 시인데요. 돈 물욕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원래의 본마음으로 돌아가서 한살림 향기를 지속적으로 잘 피워 주변을 감화시키는 한살림 사람으로 남자고 제안하는 마음을 담았던 시입니다. 자주 들어봤겠습니까만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조동하 시인의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돈 물욕으로 채워진 삶, 내 이웃과 농민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자연 생태계 파괴와 고갈을 심화시키는 삶, 독점과 양극화의 사회 갈등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삶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나부터라도 특히 한살림에서 당신처럼 귀한 사람이 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절절한 안타까움이 적셔져 있음을 개인적으로 느꼈던 시였습니다. 원래 우주존재 원리대로 인간이 바르게 사는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철저히 노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부처, 공자, 노자, 같은 성현이라고 부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역량이 뛰어나니까 혼자서도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우리같이 보통 사람이면서 마음은 간절한 사람들이, 너도 꽃이 되자 그래서 우리 서로 꽃밭 한살림 세상을 이루어서 우리 자식들이 아름다운 꽃 세상에서 살도록 하자. 이런 간절한 호소를 담아서 읊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이런 박재일 선생님의 간절함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들판에 서고 밥상 차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다시 듭니다.



이백연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말씀들을 귀담아듣고 한살림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살림 생산자가, 생산자연합회가 한살림 운동의 주체로 책임 있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살림 물품사업의 활력을 찾는 데도, 학교급식이나 푸드플랜과 같은 공공영역에도 앞장서서 한살림 농업살림운동을 넓혀나가도록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방향을 잘 세우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차 이사회 회의

7월 15일(수)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31명 참석으로 6차 이사회 회의를 진행함.
(6월 30일 현재, 회원이 2,203 가구임.)

[주요 활동 보고 내용]

- “경남연합회 너나들이모임”이 “너나들이공동체”로 명칭을 변경함.

주요회의 및 업무보고

7월 사무국장단 회의 결과를 보고함.

위원회 보고

- 2-3차 생산기술연구회 회의, 2차 정책위원회 회의, 2020년 전국여성위원회 여름연수 일정변경 내용을 보고함.
- 생산기술연구회 연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기로 함.

각부문 별 보고

- 총무회계부문에서 6월 결산내역을 보고함.

- 생산지원부문에서 리드타임 단축관련 평가회의, 복숭아작목모임, 복숭아 출하전 회의, 21년산 겨울채소 생산계획 회의, 20년산 김장채소 생산계획 회의, 생산자연연합회 회장단과 한살림연합 농산위원회 간담회, 2차 참여인 증 심의위원회, 포도 출하 전 회의에 대해 보고함.
- 정책기획부문에서 공동체활동안내서 제작TFT 1차 회의, 경북연합회 사무국 교육지원, 유기농마케팅센터 현황을 보고함.
- 교육홍보부문에서 회원가입 교육(1~3차), 사무국장단 역량강화 교육(4-5 회차), 소식지 29호 발행 결과를 보고함.

한살림연합 / 사업연합 주요보고

- 한살림사업연합에서 전략수립프로젝트에서 혁신실무팀 구성, 리드타임단축 평가 핵심내용, 외부유통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에 한살림서울이 선정되었음을 보고함.

주요 안건 논의 사항

제1호 안건 회원가입 승인의 건

제안 내용 아래 9세대 및 가공생산지 25곳의 가입을 요청함.

[경남연합회] 한울타리공동체 정상철
물레방아공동체 양기형, 송암중, 최춘근, 정부환

[전남연합회] 대숲공동체 김행규, 김영국, 김흥규

[충남북부권역] 세종고송공동체 류상현

[가공생산연합회] 꿈엔들잇힐리아, 뜨레봄, 신동광제과, (주)지지푸드, (주)안성식품, 보령우유, 선농생활, 산두레, 우리바다살림,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중앙씨푸드, 팜드림, 자연에찬, 사랑과정성, (주)에이뷰, 물댄동산, 성마리오농장, 청오건강, 하동녹차연구소, 흠사랑살림터지점, 목화송이, 성미산공방, 에덴바이오, 정선공방, 청강도에

결정 내용 원안대로 9세대, 가공생산지 25곳의 가입을 승인함.

제2호 안건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의 건

제안 내용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15,000명을 목표로 하고 서명 방식은 오프라인(서명지 작성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함. (단, 가공 생산지는 상황에 맞게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

서명 목표 1차 생산지(12,000명), 가공 생산지(3,000명)

결정 내용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서명용지 양식을 한살림생산자연연합회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함.

인농 박재일 선생 10주기 묘소참배



‘한살림 큰 농부’ 박재일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께서 86년 한살림을 처음 시작한 이후 34년이 흘렀습니다. 평소에 박재일 선생님은 도시와 농촌이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기본은 ‘생명의 밥’을 함께 나누는데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가 말로 소중하고 거룩한 일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는 더욱더 농업의 가치, 먹을거리의 소중함이 중요한 삶의 문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박재일 선생님의 말씀과 뜻을 기리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내 외빈을 초대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묘소참배는 한살림생산자연연합회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치러지게 됨을 안내합니다.

일정 2020년 8월 15일(토) 11:00

장소 박재일 선생 묘소(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690-1)

농민기본소득 100만 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조도운 전북연합회 대표

2020년 2월 18일 33개 농민,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창립식을 가졌다.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농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입법화하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기본소득에 이어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기본소득 도입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제가 제안된 현실 속의 농민과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을 먼저 알아보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0에 나온 바에 의하면

①호당 농가소득은 2005년에 3천만 원이 넘어섰고 2019년은 4,265만 원으로 추정된다.

호당농가소득(명목) 동향과 전망				단위:천원	
구분	1999	2018	2019	연평균변화율	
농가소득	22,323	42,066	42,646	3.4	1.4
농업소득	10,566	12,920	12,772	1.1	-1.1
농외소득	7,034	16,952	17,583	4.7	3.7
이전소득	4,723	9,891	9,927	4.0	0.4
비경상소득		2,302	2,364		1.9

*이전소득: 보조금, 연금, 비경상소득 경조사비, 사고 보험금 등

**농업소득은 1999년부터 20년간 900~1,200만 원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 1천만 원 미만 전체 농가의 65.3%, 1억 이상 3.5%, 농업경영비 평균 66.6%

②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18년(64.9%) 대비 0.8% 감소한 64.1%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 2029년 61.9%로 연평균 0.2% 감소하여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농가인구는 1999년 421만 명에서 2018년 232만 명으로 연평균 약 3.1%씩 감소하였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1.6% 감소한 228만 명으로 추정된다. 2029년에는 192만 명으로 예상된다.

④2018년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1999년 대비 연평균 1.2% 증가한 44.7%였다. 2019년에는 45.5%, 2029년에는 55.7%로 전망된다.(20% 이상부터 초고령 사회로 봄.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68.2세))

⑤ 농가호수는 1999년 138만 호에서 2019년 101만 호로 추정되며, 2029년에는 93만 호까지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⑥ 2018년 6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개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멸 고위험 11곳, 소멸위험 진입 78곳, 소멸 주의단계 76곳으로 총 165곳(72.3%)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20년간 농업수입은 정체되어 있고, 도농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어가면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농민과 농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농업의 다원성과 그 가치에 따른 농민을 살려달라는 요구가, 절규(?)가 있는 것이고... 못살겠다. 지친다. 차라리 잡부가 낫다.라는 한탄 속에서 실제로 농가 외 소득과 이전소득(정부 보조금, 농가소득 대비 농업직불금은 한국은 약 3%, 유럽은 약30% 임)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대다수 농민의 현실이다.

농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으로는 농민, 농촌, 농업의 미래가 없다. 농민이 있어 유지되는 농업의 공익성과 다원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기능으로서 경제적 외부효과 혹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결합 생산물의 형태"(OECD의 정의)로 예컨대 식량안보, 환경 및 생태보전, 전통문화와 농촌

경관 유지, 농촌사회의 활력 유지, 국토 균형발전 등이 대표적인 기능이다.

최근의 연구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연간 약 27조 9천억 원(2016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6년 농업부가가치 22조 5천억 원 보다 5조 원 이상 크고, 2020년 농어업예산 15조 2천억 원보다 12조 7천억 원이 많고 공익형 직불제 추진 예산 2조 4천억 원의 11배 이상 되는 금액이다.

농민을 살림으로써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른바 최소한의 농민기본소득이 제안된 것이다.

다음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제도화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이러한 이슈와 비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에서 농촌기본소득과 국민기본소득에까지 진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확보 가능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고정, 변동)', '밭농업직불제(고정, 논 이모작)로 나뉘었던 직불제를 '기본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으로 0.5ha(1500평) 이하 영농인들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를 낮추는 '면적 직불금'으로 소농에 대한 소득보전기능을 높이고 논과 밭의 형평성 마련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대상농지를 최근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한정하는 것, 공익직불제 제안 당시 논의되었던 농민의 소득에 대한 제한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직불금을 통합하여 2조 4천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신청농가 수는 115만 농가로 집계되었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므로 국가가 보상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남, 전북, 충남 등을 포함하여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월 5만 원, 년 60만 원이 기준점이 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니라 개별 농민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농민수당보다 보편성을 띤다. 경기도의 경우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부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올해 참여를 희망하는 시, 군에서 시작하되 3년 안에 전체 43만여 농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민 외에도 3년 이상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장기 영농 뒤 은퇴한 농민 등이 모두 포함된다.

"농촌기본소득"은 농가, 비농가 구분 없이 농촌거주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한계 지역(고령화로 인해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 소멸 위험에 있는 지역)의 리, 면 단위로 내년부터 시험 실시 예정이다.

농정기조를 기존의 "쌀 중심" 및 "생산 중심"에서 "공익적, 다원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에서 농민수당과 농촌기본소득, 국민기본소득에 이르는 과정에는 참여 대상의 확대(농가 -> 농부 개개인 -> 농촌 거주민)와 개인에서 공동체(농촌)로 범위의 확대 그리고 생존과 생활을 위한 농업가치의 실제화(20만 원 -> 30~50만 원 -> 150만 원)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농민과 농촌, 농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는 당연히 농민과 시민의 참여가 진행의 속도와 정도, 질을 결정한다.

예전의 대정부 투쟁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국민을 향해 생활을 보장해달라고 하자.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하자.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조직하자.농민수당을 쟁취하고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나는 지금 한살림이 불편하다

관계를 확장하고 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과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



연용 / 청주 들녘공동체 생산자

나는 2004년 한살림천안아산에 입사해 약 10년간 실무자로 근무하다가 2014년에 청주로 귀농한 청년 농부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처음에는 농업, 환경, 시민 사회 활동 등에 관심이 없었고 사명감 또한 없었다. 그런데 한살림에 다니면서 만났던 조합원, 생산자, 활동가, 이사들을 통해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존중과 서로 챙겨주는 조직문화,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 곁에서 봐왔던 농촌과는 다른 결을 얘기하고, 큰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각각의 영역에서 힘들게 활동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활동가와 이사들의 신념을 보면서, 차츰 나 자신이 이곳에 소속된 것에 보람을 느끼며, 자부심으로 가득한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거 같다. 그렇게 나의 청년기는 한살림과 함께했다.

그러나 지금 40대 초반의 생산자로서 만나는 한살림은 조금 불편하다. 예전에 실무자로 일했을 때 나는 지역에서 가공품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었다. 당시 새로운 물품으로 도시락 김이 제안되었는데, 한살림 밖에서는 너무도 흔한 그 물품이 우리 지역 한살림에서는 논쟁이 되었다. 당시에는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선배 실무자가 우리를 설득했던 말이 이후 내가 한살림을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어 주었다.

당시 선배는 한살림은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해야 하는 운동이다. 남들이 열 발자국 갈 때 우리는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야 조직이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지금의 선택이 한 발자국이라고 자신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충분히 설득이 됐다. 그리고 이후에 조직의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그 한 발자국 일 것이라고 일부러 더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다.

그런데 귀농을 하고 나서는 조금씩 그 시선들이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 생산자에게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핵심적 가치가 퇴색되는 결정들을 마주하면서 생산자로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가치에 혼란만 생

긴다. 예를 들면 리드타임 변경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 후,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 중이지만 그로 인한 시간적 제한으로 도농교류 등의 산지 교류활동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매일 전쟁처럼 물품을 생산하고 입고하는 청주는 더욱 그렇다.

한살림이 지난 몇 년 동안 저성장과 물품 사업의 둔화로, 사업적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한살림 운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결정 과정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다른 대안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토종종자 문제나 물품의 과대포장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근래에 저성장과 맞물려 조직의 결정 사항이 조직이 하고자 하는 운동의 방향과 사업의 성장이 부딪혔을 때 후자 쪽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생산지 현장에 있다 보니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한살림의 당당한 한 구성원이고 주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현실은 그것을 제약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점점 우리를 물품만 생산하는 생산자로, 한살림은 내 물건 팔아주는 업체로만 굳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한살림은 참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것이 변했다. 정말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쉬지 않고 변해왔다. 우리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논의하며 이 자리에 적응하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는 우리 생산자들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충분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변화하는 과정들을 수없이 경험하였고 수많은 회의와 논의를 통해 함께 하는 방법과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우리가 뜻을 모으고 솔직한 자세로 접근한다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우리는 책임감으로 충만한 한살림 생산자 아닌가?

가공생산지 소식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생활용품분과 소개

마음 놓고 몸에 닿고 음식이 담길 수 있는 생활용품을 생산합니다.

한살림 운동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으면 “생명사상에 기초해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합니다.”라고들 합니다. 짧지만 많은 것을 담은 이 메시지는 생활양식의 창조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무기물에 생명을 담아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한살림 생활용품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됩니다. 우리 몸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살림은 자연분해성이 좋은 원료를 선별하고, 피부에 닿는 용품은 안전한 천연성분과 천연유래성분을 사용합니다. 한살림 생활용품은 화장품/오가닉코튼/주방/욕실/세정/휴지/생활/벽지까지 그 영역이 다양하고 생활양식에 걸맞게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생활용품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한살림 물품취급 기준에 맞게, 생활용품만의 취급기준을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용품분과는 15개 생산지(상시, 목화송이, 부림제지, 성미산공방, 에덴바이오벽지, 전통예산옹기, 지원상사, 천향, 편백코리아, 물살림, 빈도림꿀초, 송산요, 인월요업, 정성

공방, 청강도예)로 구성되며 100명의 임직원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연간 4번의 회의진행을 통하여 산지상황을 공유하고 포장재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분과공동체로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과공동체를 넘어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1차 생산지 일손 돕기, 공동매장홍보활동, 수도권 외 지역 매장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활용품분과 생산자들이 멀리 제주도를 방문하여, 제주 큰수풀공동체 발에서 열심히 일손도 거두고, 생산자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의 농농교류는 공장에서도, 밭에서든 계속 이어집니다. 생활용품분과는 올해도 1차 생산지 일손돕기를 하며 함께 땀 흘리겠습니다. 9월에 포도 생산지를 찾아갑니다. 반갑게 맞아 주시고 힘차게 그리고 함께 생명살림을 다짐하겠습니다. 곧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